



HEADLINE NEWS

**체납 세금·벌과금 「특별징수팀」
구성 (시카고)**

시카고市는 稅源과 稅率은 현재와 같이 유지 하되, 법률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유발하거나 세금 및 벌과금을 체납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 (Taxpayer Cost Recovery Unit)」을 구성하여 체납 세금 및 벌과금을 철저히 거둬들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2001년도 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市는 내년부터 벌과금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소방서비스 비용 청구 등의 조치를 통해 세금 및 벌과금 ‘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의 법 준수를 환기하고 징수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청원에 의한 심사 후 면제조치, 강제 징수 등의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www.ci.chi.il.us/Mayor/news_press_taxpayerburden.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추진 (시애틀)

도시환경

- ② 오존 대량발생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오스틴)
- ③ 공공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시카고)
- ④ 자판기 옆에 쓰레기통 설치 의무화 (일본: 이와키市)
- ⑤ 소각시설의 안전성 조사작업 착수 (런던)

도시교통

- ⑥ 주차장 이용 유도 등 새 교통시책 시범운용 (동경)
- ⑦ 「전자요금징수」 제도 확대시행 (동경)
- ⑧ 혼잡통행료 징수해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 (영국 : 브리스톨市)

사회복지

- ⑨ ‘老人에 의한 老人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캠브리지)
- ⑩ 할인혜택 주는 「레저카드」 발급 (캠브리지)

행재정

- ⑪ 국제회의 개최·유치기관에 보조금 지급 (동경)
- ⑫ ‘시민행정’ 위해 「지역협의회」 구성 (L.A)
- ⑬ 「여행자 안내 카드」 배포 (뉴욕)
- ⑭ 「국제패션센터」 설립 (상해)
- ⑮ 시민 공동체의식 제고 위해 퍼블릭 아트 이벤트 개최 (뉴욕)

①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추진 (시애틀)

‘주민자치 모범도시’로 알려진 시애틀시는 최근 「회색에서 초록으로(Grey to Green)」라고 불리는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Paul Schell 市長의 역점사업인 이 프로그램은 공원녹지과의 주도 아래 마을과와 市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99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72만 달러(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의 적합성과 우선 순위를 평가한 뒤 1개 사업당 최고 7만달러(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 학교 운동장의 회색 아스팔트를 걷어낸 뒤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여 학습원을 만들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하며,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단위사업들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 개선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내 초중고의 학교 담장을 없애고 운동장 곳곳에 생태연못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www.ci.seattle.wa.us/parks/communitynotices/greengreenapplication.html)

(문화일보, 11. 17)

② 오존 대량발생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오스틴)

오스틴시는 대기 중 오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대중교통 무료 운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기질 지표(AQI : Air Quality Index)」를 세부적으로 설정했으며, 대기오염 예측시스템 및 오존주의보 및 오존경보 발효시의 행동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www.capmetro.austin.tx.us)

③ 공공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시카고)

시카고市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3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소비 감소와 청정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청, 교통국, 시카고 대학 등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냉난방, 조명, 환기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매년 6백만 달러씩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산화탄소 3만톤, 질소산화물 84톤, 이산화황 128톤씩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완공할 12개 공공 도서관의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그린빌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市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10MW 전력을 자체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유사시 예비전력 공급을 통해 에너지 초과생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www.ci.chi.il.us/mayor/news_press_energystategies.html)

④ 자판기 옆에 쓰레기통 설치 의무화 (일본 : 이와키市)

일본 이와키市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음료수 자동판매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 판매기 옆에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쓰레기버리기 방지 조례」를 시행했다. 이를 위해 市는 지난 5월 주요 도로변 등 市內 38개 지점을 대상으로 쓰레기량 조사를 실시해 쓰레기가 많은 가로변 등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市는 자동판매기 설치업체들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만엔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으며, 조례 시행 후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감량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www.kahoku.co.jp/news/2000/09/20000918j_02.htm)

5 소각시설의 안전성 조사작업 착수 (런던)

생활폐기물의 1/3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보유한 런던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까지 소각시설 신설을 유보한다고 지난 10월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런던 도심부 4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신청한 업체들이 모두 템스 강변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템스강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에 따른 조치로 나왔다. 시는 관련 후속조치로 「폐기물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국에서는 소각시설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식품안전국에서도 소각시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www.london.gov.uk/news/183-1210.htm)

6 주차장 이용 유도 등 새 교통시책 시범운영 (동경)

東京都 도시계획국은 시부야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통시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TDM 東京행동플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범운영은 일반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화물차량의 하역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첫째, 주차정보 안내판 설치와 주차장 위치도 배포 그리고 인터넷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주차장 이용 유도, 둘째, 주변지역과 시부야 중심부를 연결하는 주차장 순환버스의 운행, 셋째, 도로나 주차장 일부에 물품하역 전용 공간 설치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변교통상황 및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를 조사하여 시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都는 이 결과를 시부야구의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CHOUSA/2000/10/60AA6100.HTM)

(www.smooth-shibuya.metro.tokyo.jp)

7 「전자요금징수」 제도 확대시행 (동경)

「ETC(전자요금징수)」 제도가 東京都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본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2년 말까지 900개의 톨 부스 설치를 목표로 우선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580개의 톨 부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확대 시행은 국가표준의 통합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그 동안 각기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톨 도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표준 On-Board 장비’와 톨 시스템을 개발 또는 지원해왔다.

(ITS World, 9·10월호)

8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 (영국 : 브리스톨市)

영국의 브리스톨市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市는 그 동안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징수한 혼잡통행료를 버스요금 지원, 「Rapid Transit System」 도입 등 대중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해왔다. 그 결과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없이 도심부 상업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었다.

(www.lga.gov.uk/lga/transport/index.htm)

9 '老人에 의한, 老人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캠브리지)

캠브리지市 근린주구개발팀은 「불사조 2000(Phoenix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노인계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 있다. 市는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55세 이상 노인과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 노인대상 서비스수준 평가, 노인들의 보유 기술 및 경험 활용방안, 노인들이 바라는 여가활동의 내용 등에 대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을 위한 보다 좋은 정부(Better Government for Older People)' 사업을 비롯, 여러 국책사업들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www.cambridge.gov.uk/phoenix/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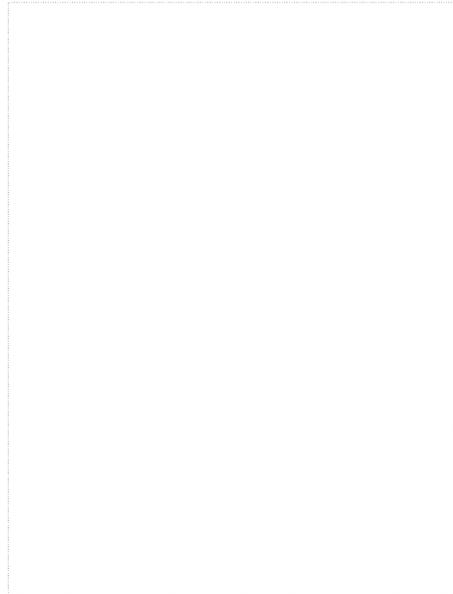
8 할인혜택 주는 「레저카드」 발급 (캠브리지)

캠브리지市는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레저카드(Leisurecard)」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카드는 개인별로 발급되며, 시립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을 비롯, 상점, 레스토랑 등 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과 할인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며, 신규 카드 가맹점 명단은 지방신문 최신호에 게재된다.

(www.cambridge.gov.uk/leisure/lcard.htm)

㉔ 국제회의 개최·유치기관에 보조금 지급 (동경)

東京都는 'Tokyo Convention Visitors Bureau'와 연계, 국제회의 및 관광객 유치에 강화할 계획이다. 都는 都内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93년 90건(세계 14위)에서 '98년 59건(세계 26위)으로 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 촉진을 위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12월부터 총예산의 10%(2백만엔 상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Tokyo Convention Visitors Bureau'가 아시아 각국의 현지 여행사와 제휴하여 독자 「투어」를 기획할 예정이다. (日本經濟新聞, 11. 2)



㉕ '시민행정' 위해 「지역협의회」 구성 (L.A)

로스앤젤레스市는 市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市 전역에 걸쳐 「지역협의회(Neighborhood Councils)」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市의 지역권리부서(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설립된 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시민들에 의해 승인된 「New L.A」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는 향후 市 행정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市는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을 위한 초안을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전단이나 포스터의 형태로 시청, 도서관, 공공장소에 게시할 예정이다. (www.lacityneighborhoods.com)

④ 「여행자 안내 카드」 배포 (뉴욕)

뉴욕시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사와 공동으로 「뉴욕시 여행자 안내카드(NYC Visitors' Tips)」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 안내카드에는 관광객들이 상점이나 음식점, 택시 이용시 '바가지요금'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는 요령 등을 비롯, 실속 있는 쇼핑 및 피해 신고요령 그리고 기타 관광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11개국의 언어로 작성된 이 카드는市内 호텔과 관광명소, 관광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www.ci.nyc.ny.us/html/dca/html/dca/html/presstour.html)

④ 「국제패션센터」 설립 (상해)

상해시는 세계 각국의 패션업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상해 국제 복장·복식센터」를 지난 10월 15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상해시를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의 패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중국 의류산업의 창구, 패션 및 의류 무역의 중심지, 의류산업 관련 연구·정보·인재 교류의 장으로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www.peopledaily.co.jp/j/2000/10/16/newfiles/a1130.html)

④ 시민 공동체의식 제고 위해 「퍼블릭 아트 이벤트」 개최 (뉴욕)

뉴욕시는 지난 여름동안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한 「소들의 행진(CowParade New York 2000)」 행사 때 거리에 설치했던 모형 소 75마리를 지난 9월 28일 경매를 통해 팔았으며, 그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소들의 행진」 행사는市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퍼블릭 아트 이벤트」로, 뉴욕의 예술가들과 학생, 교사들이 색깔과 장식을 달리한 실물크기의 모형 소 500마리를 만들어市 전역의 공원, 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했었다. 설치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이와 같은 행사는 '9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99년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www.ci.nyc.ny.us/html/om/html/2000b/pr373-00.html)